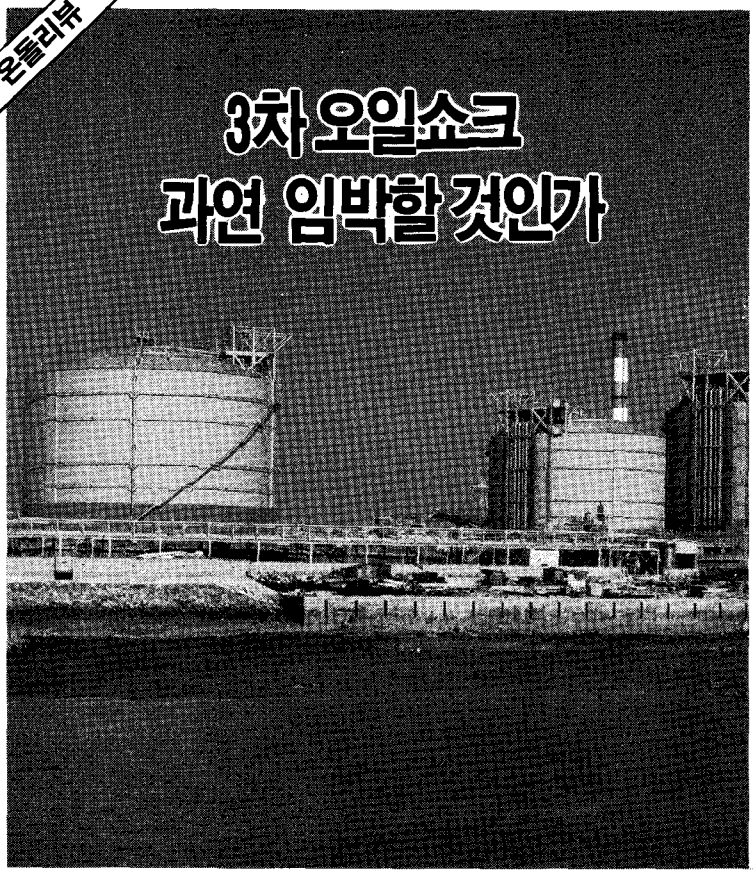
온돌리뷰

3차 오일쇼크 과연 임박할 것인가



「3차오일쇼크」는 과연 임박한 것인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3차석유파동이 임박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있다. 최근의 여러 징조가 1차와 2차석유파동이 일어나기전과 똑같고, 동구권개방에서 유발된 특수까지 겹쳐 유가폭등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논쟁이 들끓고 있다.

일본통산성에서는 90년계획을 세우면서 오일쇼크 발생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주제중 하나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몇년동안 워낙 좋은 값에 원유를 수입해 따뜻한 겨울을 수월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형편에서는 실감날 턱이 없는 이슈이다. 그렇지만 일본연구소들은 오일쇼크가 앞당겨 닥쳐온다고 확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석유파동에 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열흘전 미국의 저명한 석유일간지 오일데일리는 미국IIE(국제경제연구소)의 저명한 벌리저 박사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다. 그는 이 기고에서 한마디로 다음번 석유파동은 지난73년 1차쇼크 79년 2차쇼크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원유값 인상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는 초단기간내에 원유파동이 일어날것처럼 예측, 마치 핵무기가 난무하는 3차대전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다.

벌리저 박사는 이같은 길한 조짐을 작년3월 알래스카에서 터졌던 미국엑슨사의 발데스호 원유유출사고에서 간파하고있다. 당시 4월 한달동안 가솔린가격이 19센트나 폭등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것은 한달사이에 일어난 일치고는 과거 오일쇼크때도 없었던 사상최고 폭등세였다. 그의 주장은 석유시장구조가 이미 한번 불붙게되면 급속하게 위기국면에 빠져 들도록 변했고, 어느 한지역의 사고가 다른 지역의 시장에 신속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데스호사고에서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원유비축을 늘리고, 석유소비를 줄이는 비상계획을 준비하라고 건의를 하고있다. 다만 그는 다음번 석유파동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데는 뚜렷한 시사를 해주지 않았다.

운명의 3차파동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일본에서 한창이다. 지난주 미쓰이연구소는 92년말쯤에 석유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석유관련연구소의 쌍두마차로 꼽혀온 에너지경제연구소와 중동경제연구소도 이구동성으로 90년대 초반, 국제원유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연구소들은 하나같이 요즘의 석유시장 낌새가 1-2차파동때와 똑같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석유소비증가율이 한껏 높아졌다든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점유비율

은 줄곧 느는 대신 알래스카 북해 멕시코 소련 등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은 지지부진하다든가, 미국의 석유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든가 등등의 각종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OPEC국가들의 석유생산 가동률이 급속도로 상승,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기 힘든 「위험선」에 도달하고 있는 점을 한결같이 꼽고 있다.

일본연구소들은 90년대초반이 되면 배럴당 16~18달러 수준인 유가가 25~30달러까지 상승하고,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다. 어느 연구소는 92년 여름부터 오일쇼크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들은 『석유문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90년대는 파는 쪽이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운명의 3차 파동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3차 석유파동이 임박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있다.

최근의 여러 징조가 1차와 2차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고 동구권 개방에서 유발된 수요까지 겹쳐 유가폭등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논쟁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3차오일쇼크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로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만이 권위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세분석가들은 동구개방이 석유파동을 유발하는 최대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소련은 석유생산량이 줄어 들어 그동안 동구위성국을 원조해 오던 것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반면에 동구국가들은 장차 경제개발정책추진으로 석유수요가 의외로 팽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서방산유국에 원유주문을 내고 있다고한다. 이와관련, 부세나 알제리석유장관은 3일 『동구권의 민주화 과정은 석유수출국들에게 큰 호재』라고 전제, 『유가는 향후 2년간 배럴당 18당러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미부시행정부의 인맥을 분석한 끝에 「오일쇼크를 조장할 팀」으로 명명한 젊은 미래학자까지 등장했다.

후지이 노보루라는 일본케임브리지 포캐스트그룹 대표는 부시대통령과 그의 친구모스바커 상무부장관은 텍사스 석유재벌출신이고, 댄 퀘일부통령과 수누누 백악관비서실장은 친아랍계로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석유값이 오르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에너지업계가 윤택해진다. 어느정도 관리되는 유가강세를 유지시키려면 미국재계와 OPEC의 제휴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후지이는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 석유가격이 심상치않을 것이라는 전망만은 일치한다. 갈수록 석유소비는 늘고, 비축시설마저 형편없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